

## News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대출 조이기'는 계속

조선비즈

5대 은행의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 705조 6,8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7,905억원 증가… 이달 들어 증가 규모 감소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증가한 것이 영향… 을 들어 10월까지 월평균 3조 5,524억원 증가한 만큼 남은 두 달 동안에도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목표치 맞출 수 있어…

###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아파트 잔금대출 분담해달라”

동아일보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내달라 요청…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한도 줄이고 대환대출 전면 종단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할 계획  
금융당국과 은행권, TF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여 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 공유하기로…

### 내년 첫달부터 은행점포 100여곳 통폐합

서울경제

은행권, 영업점 통폐합 가속화되며 새해 첫 달부터 문 닫는 곳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 증대로 이용 고객 증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확산 영향… 은행권 지난 5년간 축소한 점포 수 1,000여 개에 달해…

### 돈 열심히 갚아도…은행들 “실적 있어야 이자 내려줍니다”

한겨레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9만 8천건에서 지난해 91만 1천건으로 3년간 4.5배 증가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받은 사람이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혜택 크지만 보험료 폭탄에 백기…실손보험 대규모 갈아타기

연합뉴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18만 2,367건

실손보험 개편을 앞두고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가입자가 더 빠르게 증가…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 결과로 분석

### 신한금융지주, 손해보험사 품었다…BNP카디프손해보험 인수

한국경제

신한금융지주, 외국계 보험회사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 현 대주주인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원대 인수하는 SPA도 체결

그간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그동안 손보사 인수 추진해와… 17번째 자회사로 편입하고 디지털에 특화된 손보사로 키운다는 전략

### 하이·신영·DB 등 중소 증권사 해외주식 서비스 박차

한국금융신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등 중·소형 증권사는 올 들어 해외주식 서비스 선보여…

증권사 수익 내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비중이 점차 커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 결과

### 증권사 해외법인 상반기 순익 작년보다 136배 증가…한국투자·NH투자증권 선방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증권사 중 해외 종속법인 실적 공시한 7곳 해외 자회사 순이익 살펴본 결과 전체 순이익은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억 8,000억원 비해 136배 증가

순이익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378억원의 순이익… NH투자증권도 해외 자회사 8곳에서 상반기 순이익 137억원 기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